# 여수산단 火電 건립 논란

## 1000MW규모 2개 2018년까지 추진 계획

## 시민단체·시의원들 "환경오염 우려" 반발

여수 국가산단내에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자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여수산단안 2곳에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돼 향후 대기 환경오염 등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건립 반대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화력발전소 건립은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여수시의 해양환경보존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여수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여수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는 화력발전소 건립반대 대책위 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여수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 지역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와 시의회 등은 화력발전소 건립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여론을 수렴해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첨단설비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특히 건립지가 산단부지고, 주변 해역에 어장도 없어 보상 등 민원발생 소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마감된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건립의향서에 따르면 여수에 건립의향을 밝힌 곳은 (주)한양 그린발전소와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 대체발전소 등 2곳이다.

한양은 낙포동 산 36-3번지 단지포에 17만6291㎡(매립지 12만6438㎡와 임야 4만 9859㎡)에 2조 원을 들여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1000MW 발전소 1기를 2014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 동서발전소 호남화력 대체발전소도 현 발전소 회처리장 일부를 매립한 62만㎡(육상 37만3000㎡·해상 24만7000㎡)부지에 2조5700억 원을 투자해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1000MW 발전기 1기를 2014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2012 국제농업박람회 녹색 미래를 연다 ❷ 농업미래관

# 생명반도체 '종자' 등 꿈의 기술 한눈에

## 물고기·식물 동시에 기르는 '아쿠아포닉스'

## '팜프렌지' '위팜' 등 스마트폰 앱게임도 즐겨

농업미래관은 최첨단 미래농업을 이끌게 될 꿈의 기술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다. 1406㎡의 전시공간에 6개 테마별로 코너를 구성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생명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전시용 종자 108종을 출입구에 연결된 슬로프를 올라가면서 관람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종자인 바다야자 종자와 0.5㎜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난 종류의 종자가 눈길을 사로잡고 골든씨드, 기능성 종자 등 미래에 도입될 새로운 종자가 관심을 끈다.

주제영상관에서는 미래의 농업을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이나믹한 영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0m에 달하는 360도의 서클비전(원형 영상)과 버티컬팜 영상에서 미래 농업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하게 된다. 백신과일, 우주농장캡슐, 바닷속 농장, 복합 과일나무를 만날수 있는 곳이다.

첨단농업의 현주소를 아는 것도 농업미래관 관람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다. 농업이 생명공학(BT)·나노공학(NT)·환경공학(ET)·우주공학(ST)과 만나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식물공장과 아쿠아포닉스(양어수경), 해수농업 등 첨단농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물고기와 식물을 동시에 기르는 아쿠아포닉스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와 미래 농업과 식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식물공장의 다양한 형태를 만나게 된다.

농업미래관내 주제영상관. 버티컬팜과 서클비전이 어울려 미래농업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곳이다.

장미 등 야광꽃과 무지개꽃 등 첨단기술로 새롭게 태어난 이색 꽃과 로봇 트랙터, 과채류 접목 로봇 등 첨단농업 기자재를 눈앞에서 보고 미래학자가 본 2050년의 미래 농업 기술의 발전 시나리오를 가상의 현실로 만나게 된다.

휴식공간인 디지털 가든에서는 퀴즈 형태로 세계 각국의 농작물 인증제도를 알아보고 에코 카페에서는 '팜프렌지' '위팜' 등 스마트폰 앱으로 농업관련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양선옥 전시연출팀장은 "미래농업을 실물과 영상을 통해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 효과가 높은 전시관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 추석맞이 이벤트

# 민속놀이 풍성…물속 제기차기 이색대결도

### 입장료 20% 특별할인

재개장 이후 한 달 만에 7만 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수박람회장내 '한화 아쿠아플라넷〈사진〉 여수'가 추석을 맞아 제기차기·널뛰기·투호 놀이 등 다양한 전통민속놀이 특별 이벤트를 펼친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연휴 3일 동안 아쿠아리움에서 관람객과 아쿠아리스트가 메인수조 안팎에서 제기차기 시합을 벌이는 이색대결 행사를 연다. 제기차기 시합은 하루 2차례 오전 11시와 오후 5시 20분 생태설명회 직전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각종 생태설명회와 공연 중간에 퀴즈쇼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퀴즈쇼가 진행되는 생태설명회는 참 물범, 벨루가, 메인수조·펭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물개공연 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는 관객들에게는 친환경 솔라킷 장난감, 에코 백 등 다양한 기념품도 선물할 계획이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2012 여수박람회' 관람객 공식 설문조사에서 4대 특화시설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곳으로 선정된 데 이어 엑스포 최고의 '핫 플레이스에'(hot place)까지 올라 2관왕의 영예를 안은 인기 전시관이다. 지난달 13일 재개장 이후 전국에서 주말이면 5만여 명, 평일에도 2000~3000명씩 찾아 한 달 만에 7만 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그동안 여수박람회를 위해 노력했던 여수시민들에게 입장료의 20%를 특별 할인해주고 있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에 제대로 즐기지 못한 아쿠아리움의 재방문을 위해 박람회 티켓을 가진 관람객에게도 20%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문택기자 mtlim@kwangju.co.kr

# 한옥 모형집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영암군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 보고회

영암군은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만들기 위한 군정목표에 부합하고, 각 분야에 걸쳐 지역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내년도 신규 시책을 발굴했다.

영암군은 최근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내년도 새로운 시책 55건과 예산반영 사업 150건, 현안·공약사업 74건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특히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지역홍보와 함께 한옥 모형집 제작 전시 등은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됐다.

묘지매장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항공영상 공간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등은 최신 IT기술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새로 발굴한 시책과 예산반영,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과 형평성·공정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성양제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내년부터는 제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 '전남발전 성장동력' 주제 시·군 기획실장협의회

제2차 전남 22개 시·군 기획실장 협의회가 지난 19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동북아경제권 시대 전남발전을 선도하는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 기획실장,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진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에 열린 제1차 협의회와 시·군별 현안 건의사업을 토대로 전발연이 마련한 '전남발전 대표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최종 협의하는 시간으로, 제18대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뒀다.

전발연은 협의회에서 2013년 새정부 출범에 의미를 맞춰 ▲'루트(Route) 13' 융·복합산업밸리 조성 ▲목포~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섬진강 에코(Eco) 천리길 조성 ▲영산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식량위기 및 농업개방 대비 중농(重農) 프로젝트 등 13개의 대표 성장동력 프로젝트와 함께 권역별 현안과제들을 제시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 밤 줍고 영화도 보고

### 곡성 산골마을 '알밤영화제'

"밤도 줍고, 영화도 보며 가을밤의 정취를 누려 보세요."

농촌과 환경을 주제로 열리는 '제4회 산골마을 알밤영화제'가 22~23일 1박2일 동안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봉조 농촌체험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야외영화관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환경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1960년대 한국영화 등 영화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참가비는 3만6000원이다. 문의(061-362-5268)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